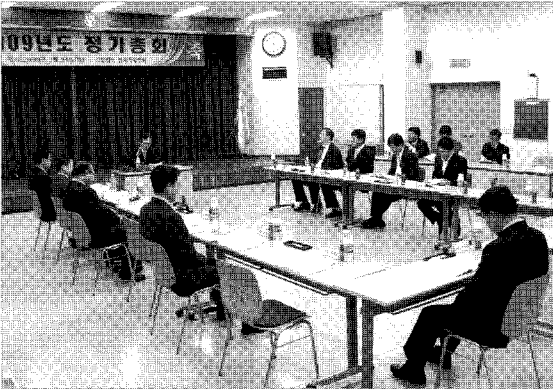


2009년도 정기총회 개최

올해 예산안 9억4천5백여만원 승인



본회는 지난 2월 24일 경기도 분당 소재 수의 과학회관 대강당에서 200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서성배 회장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또 전년대비 46%가 증가한 9억4천5백여만원(일반회계 7억3천7백만원, 간행물 특별회계 2억8백만원)의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승인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08년도 주요사업 추진 실적 및 수지예산 집행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2008년도 축산시책 유공자 3명과 HACCP 평가 결과 1개사에 대한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 표창 전수에 이어 그동안 국내 계육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날 서성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2년 동안 계육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각종 위원회 활동 활성화를 비롯 닭고기 소비촉진 및 홍보강화, 축산법 개정 등을 통해 계육산업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년에는 우리 계육산업 발전에 실익이 있도록 각종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해결방안 마련 및 업무추진 등에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2009년도 포상 대상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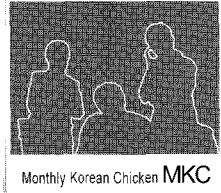
구분	수상자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 표창	장재웅 (주)청정계 이사
	김대식 (주)하림 차장
	문소정 (사)한국계육협회 대리
	(주)마니커(단체표창)
협회장 감사패	이상길 (전)농림수산물식품부 축산정책담당
	김재민 축산경제신문 기자

2009년도 제1차 이사회 및 제2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개최

총회 부의안건 심의



본회는 지난 2월 18일 본회 회의실에서 2009년도 제1차 이사회 및 제2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를 개최하고, 총회 부의안건인 2009년도 예산편성기준 및 회비 부담액(안)과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닭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을 통해 계육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2009년도 닭고기 소비촉진 및 홍보강화를 위해 라디오 광고 및 포스터, 인쇄물을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또한 닭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 맞춰 닭고기 유통 감시단을 발족해 국내산 닭고기 소비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철새도래 상황조사에 따른 방역조치 이행

회원사에 AI 전파요인 사전 차단토록 당부

본회는 지난 2월 13일 철새도래 상황조사에 따른 방역조치에 대한 이행사항에 대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회원사에 요청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금류 사육농가는 철새도래 시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농장 주변에 철새의 먹이 등을 제거, 개방형 축사는 방조망을 설치, 농장 방문자의 축사 출입 통제 및 출입차량과 사람 등에 대한 소독 철저, 철새 도래지역 주변 농가에 대한 예찰 강화 등이다.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에서 3차례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는 철새 유입에 의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철새 등 야생조류와의 접촉에 의한 AI 전파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전라남도 지역 저병원성 AI 항체 검출

회원사에 철저한 차단·방역 요청

본회는 지난 2월 21일 전남지역 AI 항체 검출 농장과 역학관련 농장에서 저병원성 AI 항체가 검출된 것에 대한 조치로 회원사에 AI SOP에 따라 철저한 차단·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7일 전남 순천·곡성·보성 지역 저병원성 AI 항체(H5형) 검출농장과 역학적 관련농장에 대한 검사결과 전북 익산 및 군산지역 닭 사육농장에서도 H5형 AI 항체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전라북도에서는 AI 항체가 검출된 농장들에 대해 고병원성 AI 발생에 준하는 세척 및 소독을 실시했고, 강화된 AI SOP에 따라 모두 살처분 및 매몰했다.

제2차 편집위원회 개최

오는 3월 5일 본회 회의실에서

본회는 오는 3월 5일 본회 회의실에서 2009년도 제2차 편집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편집위원회에서는 '월간 닭고기' 전월호 평가와 아울러 2009년도 4~5월호 편집방향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